

Venture Radar

재정경제부, 행정절차 간소화로 中企 창업지원

재정경제부(장관 이현재)에 따르면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올초 증가세를 보였던 창업기업이 지난 4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현재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2000년대에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갖고 정보기술(IT)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허무하게 끝난 순간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좀더 질서 있고 체계적인 창업활성화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창업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술력 있는 사업주들의 신규설립을 돕기 위해 매출액을 따지지 않고 기술력만 보는 ‘기술평가보증’의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출자전환부 대출 등을 통해 창업자금 지원규모를 늘

리는 방안도 거론되고있다. 또한 일반 기업의 창업보증한도가 매출액의 25%로 절반까지 가능한 벤처기업에 비해 불리하다고 보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창업 관련 절차를 일원화했던 프랑스와 핀란드의 사례를 원용,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편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6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시범단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클러스터는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을 한곳에 모아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기술을 스스로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단지를 말한다.

현재는 충북 오송(바이오)과 대전 대덕연구개발(R&D) 특구가 지정돼 있다. 구미는 디지털전자, 창원은 첨단기계, 울산은 자동차부품, 반월시화는 첨단부품소재, 광주는 광(光)산업, 원주는 첨단의료기기의 거점으로 각각 육성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이들 6개 클러스터에서 산·학·연 공동의 핵심선도기술 개발, 산업단지의 연구역량 확충, 교육 혁신 및 전문인력 양성 등 6대 과제를 추진키로 하고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자원부, 중소·벤처기업 특허분쟁 지원

산업자원부는 전자부품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정해 ‘디지털 전자분야 특허분쟁 지원사업’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외국업체의 파상적인 특허공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품목에 대한 특허분석과 분쟁대응방안 수립을 통해 특

盧대통령, ‘IT 839 전략’에 중소기업 적극 지원

– “벤처기업지원정책 실패했다는데 동의 못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일 정보통신부에서 열린 ‘U-코리아 보고회’에 참석, “중소기업이 정보화시대에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U-코리아 비전에는 세대간, 소득간 정보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예전에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에 대해 실패했다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사업적으로 망하는 회사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과 기술은 경험으로 축적돼 한국의 지적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하고, IT기술이 성공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비용지출이 뒤따르지만, 국민 모두가 실패에 대한

관대함과 여유를 갖고 투자와 지원, 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IT산업은 서비스-인프라기기·콘텐츠가 상호연관된 특유의 수직적·수평적 가치사슬을 이루고 있다”며 “IT 839전략을 통해 IT전반의 선순환적 발전 구도를 이끌어내 국민소득 2만달러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IT 839전략이란 IT산업의 가치사슬에 따라 8대 신규 정보통신서비스를 도입 활성화해 3대 유무선통신, 방송, 인터넷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유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9개 첨단 기기와 단말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IT산업의 발전전략을 말한다.

허분쟁으로 난관에 처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원천 핵심기술을 보유한 유럽 기업들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미숙한 특허관리 및 대응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 대상기술 및 품목으로는 디지털전자기기(MP3플레이어 등 4개 품목), 디스플레이(TFT 등 4개 품목), 2차전지(리튬이온 2개 품목) 등 3대 분야, 10대 품목이다.

이를 위해 특허 법률전문가, 특허 라이선싱 및 소송전문가를 포함한 '특허분쟁 대응전문가협의체'를 꾸리는 한편, 특허공세에 대한 기술개발, 법·제도, 특허 인프라를 담은 종합 대응방안을 세워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 M&A기금 1000억 조성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올해 안에 5개 조합, 1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펀드를 추가 조성해 부실위기에 처한 중소·벤처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그동안 정부 재정자금이 출자된 조합이 중견기업 1~2개의 구조조정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감안, 이번에 결성되는 조합은 주식시장에 공개되지 않았고 부품·소재기업으로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과 M&A를 주로 지원하는 펀드 중심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벤처캐피탈회사들이 구조조정 업무영역을 강화하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해 벤처캐피탈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중소 벤처기업 과제 공모

해양수산부(장관 장승우)는 해양수산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004년도 기술개발자금 지원대상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공모 대상과제는 ▲해양생명공학 ▲수산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문화 등 6개 분야다. 지원 신청 대상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예정자로 한정하고 있다. 과제 선정기준은 실용화가 유망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 해양기술(Marine Technology)내용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8~9월에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를 거쳐 10월 중에 최종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는 2년간 최고 1억원까지(기술개발비의 75% 범위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

IT제조업이 하반기 경기회복 주도

하반기 IT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이상 증가하며 산업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04 하반기 국내산업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IT제조업 생산이 통신기기·반도체 등 핵심 IT제조업의 수출호조에 따라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통신기기 생산의 경우 내수가 다소 위축되고 있지만 세계시장의 성장세 지속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따른 수출호조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0% 증가한 22조94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내수회복이 예상되는 컴퓨터는 6.1%대의 생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가전부문은 여전한 내수부진 속에 3.6%의 생산 증가에 그치면서 17조5910억원의 생산액을 보일 전망이다. 반도체도 디지털가전·휴대전화·디지털카메라·MP3 등 기존제품의 국내외 수요급증과 더불어 USB메모리·자동차 등 신수요 등장에 따라 27.5% 증가한 210억5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벤처이슈

제일경제

지난 2001년말 1만1392개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작년 10월 30개사를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2년여 간 매월 감소세를 지속하던 벤처기업 수가 반년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벤처경기가 회복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 6월 1일 제일경제 9면



전자신문

오즘과 같이 국내외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중소·벤처기업 부문의 구조개선이 시급한 시기에는 중소·벤처기업이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금도 혁신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되어야하며 효과적인 지원시스템 확보 차원에서 지역 중심의 협력형 지원시스템인 클러스터가 조기에 정착되어야함을 제언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박봉수 이사사의 칼럼

▼ 6월 3일 전자신문 31면

